

주꾸미 자원회복 지속 추진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 무상 방류

전북도가 자체 생산한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도내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한다.

15일 도 수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생산한 어린 주꾸미 35만 마리를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무상 방류한다.

부안군 대항리(6.16) 10만 마리, 고창군 구시포항(6.18) 10만 마리, 군산시 야비도(6.21) 15만 마리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주꾸미는 실내수조에 인공 산란장을 조성해 포란된 어미를 건강하게 사육관리 하면서, 산란 유도 후 약 40~50일간 어미 및

수질관리를 통해 전장 1m 내외까지 건강하게(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완료) 성장한 우량종자이다.

그동안 도 연구소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주꾸미 대량 종자생산 시범연구를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꾸미 생산·방류를 시작했다.

작년까지 총 5,235천 마리를 도내 연안에 지속적으로 방류,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주꾸미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과 DHA 등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불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전병권 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서해안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주꾸미 종자 방류를 통해서 주꾸미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감소 추세에 있는 품종과 경제성이 높은 교부가치 품종에 대해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연구소는 올해 꽃게 20만(6.9), 주꾸미 35만(6.16~21.), 바지락 1,000만(11월), 해삼 30만(11월), 박대 10만(11월)마리 등 1,095만 마리의 바닷고기를 생산해 도내 연안에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청소년과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청소년 대사' 프로그램에 선발된 뉴욕 및 LA 지역의 우수 고등학생 간 온라인 행사가 15일 진행됐다.

전북-미국 청소년, 코로나19로 바뀐 생활 공유

'코로나19가 야기한 교육 환경 및 학교생활 변화' 주제로 줌 화상회의 개최

전북 청소년과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청소년 대사' 프로그램에 선발된 뉴욕 및 LA 지역의 우수 고등학생 간 온라인 행사가 15일 진행됐다.

전북의고 학생 20명, 뉴욕 및 LA 지역 고등학생 16명은 '코로나19가 야기한 교육 환경 및 학교생활 변화'를 주제로 줌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의 수업 방식,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자유롭게 질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북, 뉴욕, LA 지역에 거주하는 총 40여명의 고등학생들은 각각 다

른 시차에도 불구하고, 학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자택 등에서 회의에 개별 접속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상 수업, 온라인 시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식과 비대면 및 드라이브 스루 졸업식 등 창의적인 온택트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달라진 학교생활, 신체 및 여가 활동과 수면 시간 감소 등 양국 학생들이 직접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오늘 전북-미국 청소년간 실시간 대화는 단계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

는 온라인 행사인 만큼 특별하며,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류 추진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민희 도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전북-미국 청소년 교류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게 된 데에 양 지역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했고 또 새로운 교류 방식 시도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행사처럼 급변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숙박 예약 추첨제 실시

여름 성수기 7월 15일~8월 24일 기간... 29일까지 쉼나들e 누리집 통해 예약 신청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섬진강의 발원지, '전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예약 추첨제를 실시한다.

휴양림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첨제는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첨제 대상 기간은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이다.

예약 신청은 6월 15일 09시부터 29일 24시까지 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쉼나들e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숙박 기간은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다.

추첨 방법은 예약시스템 상의 일지별, 숙박별 무작위 추첨이다.

오는 7월 1일 10시에 당첨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할 예정이며, 이용료 결제기간 중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10시부터 7



월 4일 24시까지 이용료를 결제해야 한다.

본인 취소 또는 미결제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된다.

김용운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숲이 제공하는 녹음과 자연 속 힐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편,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데미샘자연휴양림은 230ha의 넓은 부지에 숲속의집(10동), 한옥형 숙박 시설(2동), 휴양관(1동 11객실), 숲문화마당, 명상의 숲, 물놀이장, 북카페,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북도, 농기계 임대료 인하 12월까지 연장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4월과 7

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운영된다.

농업인이 3,000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하루에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전북도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합격자를 전북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력시험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581명 중 414명이 합격해 71.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체력시험 합격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소방청이 지정한 전국 55개소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등을 지

참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를 비롯한 채용관련 서류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전북도청 별관 공연장 3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분별별 제출일자를 지정해 진행하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적성검사는 오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북도청 별관 공연장 3층에서 진행한다. 신분증과 컴퓨터용 흑색사인편을 지참해야 한다.

감염예방을 위해 오전, 오후 각각 100여명 정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적성검사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돼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 감염예방에 노력해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의 소방공무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제1기분 자동차세 747억원 부과

전북도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61만 건, 74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고지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이체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미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증가산금이 부과된다. /유호상 기자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부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242-14, 산 246-2, 산 248-1, 산 249
2. 분묘기수: 1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및 공동주택 사업용
4. 인치기간: 10년
5. 인치장소: 전북 군산시 임피면 서원 석곡로 436-34 군산시 추모관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입회개장
유연분묘 - 협의개장
8. 신고처: (유)도우산업개발 010-3659-9255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공사 중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유)도우산업개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